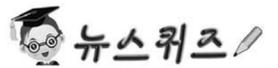




박소현의 섹.시.토.크

학력만 위조 하는 게 아니야



저녁을 먹은 뒤 신문을 뒤적거리던 J씨,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사회적응을 일으키고 있는 학력 위조 뉴스를 읽다가 문득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 S대학 나온 거 확실해?"

거 아니겠어?" "그렇긴 하지만 애초에 속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더 큰 문제지, 그건 분명히 사기잖아."



여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부부사이드 예외는 될 수 없었다.

그것도 속인거지." "에이 그런 것 말고 그보다 좀 더 심각한 거 말아야. 지금 털어놓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테니까 사실대로 말해봐."

"사실 속여 온 것이 있어" "뭐, 뭐, 뭔데?" "잠자리때 별로였던 적 많았거든 그런데 매번 속여 왔어"

"뭐지? 진짜 뭔가가 있는거야?" J씨가 아내의 표정에 오히려 당황하는 사이, 아내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든? 그런데 매번 오르가슴 느끼는 척 속여 왔어." J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진짜야? 얼마나 많이?" "거의 세 번의 한 벌 끝은 가짜 오르가슴이었지."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이동국(28·미들즈브러)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골을 기다린 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첫 골을 터트린 이동국(28)이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으며 단숨에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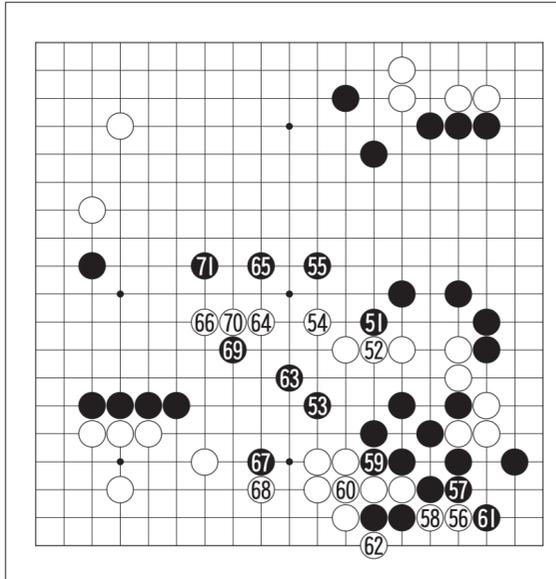
섹시스타 이효리 광고 선정성 논란

좋아?"라고 묻고, 남자가 "아~ 미치겠다"고 외치며 이효리를 따라가는 내용으로, "소리만 들어보면 완전히 아동(아한 동영상)"이라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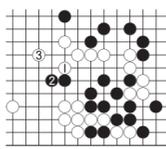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자들 다 독사다"라며 "피해가 가는 몇 분이 있었지만 기사화된 것은 모두 사실이였다"고 고백했다.



광고 속 대화 내용과 지나친 가슴 노출 등으로 인터넷에서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효리가 출연한 삼투 광고 장면.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준결승 1국



<참고도>의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흑 51로 들여다 보고 53, 55가 매서운 공격이다.

본노의 추격전 4보(51~71)

白 이창준 5단 (주수협) /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우변에 선 착을 하고 도실 패를 맞받아 김영수 5단이 본노의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백 58로 끊어둔 것까지는 좋았으나 백 62로 잡은 것은 손바람이 지나

바둑소식

강동운·백홍석 오스람배 쟁패

강동운 7단이 지난 29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7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 결선 준결승전에서 진동규 3단을 14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1일(음 7월 19일 丁酉)

- 36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48년생 문사상 예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0년생 직장에서는 행동들 짐에서는 맘을 조심하라. 72년생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84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and answer pair for a sightseeing tour.